

○○○ 해방후 각 공화국의 통치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시리즈 <4>

세계강화에 공헌한 정권변천사

정의사회구현과 전두환 정권

I. 전두환 정권의 등장

유신체제의 몰락은 세계경제의 불황과 한미관계의 악화라는 외적 요인과 국내 경제의 불황과 노동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 등의 내부적인 위기가면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어난 돌발적인 사태였다.

이와같은 사회적 혼란은 당시의 계엄령하에서 위기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군부에게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 명분이 제공되어 무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재창출하게 되는 시대로 급격하게 선회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혼란은 당시의 계엄령하에서 위기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군부에게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 명분이 제공되어 무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재창출하게 되는 시대로 급격하게 선회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혼란은 당시의 계엄령하에서 위기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군부에게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 명분이 제공되어 무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재창출하게 되는 시대로 급격하게 선회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혼란은 당시의 계엄령하에서 위기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군부에게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 명분이 제공되어 무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재창출하게 되는 시대로 급격하게 선회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혼란은 당시의 계엄령하에서 위기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군부에게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 명분이 제공되어 무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재창출하게 되는 시대로 급격하게 선회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혼란은 당시의 계엄령하에서 위기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군부에게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 명분이 제공되어 무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재창출하게 되는 시대로 급격하게 선회되었다.

서의 막을 내리고 대통령직사사건을 담당하고 12·12사태를 주도하였으며 그리고 5·17광주항쟁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급격하게 정치권력의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전두환 장군이 유신체제를 상징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선거를 통해 1980년 8월26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결국 유신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1979년 10월 26일에서부터 1980년 9월1일의 전두환정권의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10여개월간의 격동기는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기 위한 엄청난 희생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군부에 의해 주도되는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체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II. 전두환정권의 제1기

유신체제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전두환정권의 속성은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던 유신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같은 국가권력의 향방을 설치하여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군의 정치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또다시 정국의 주도권이 정치군인에 의해 압도되는 새로운 군부정치시대를 등장시켰다.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총26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의 군인이 임명되었고, 전두환장군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가운데에서도 18명이 현역장성으로 충원되는 등 국정전반에 군부들이 의해 장악되는 극히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즉 국가보위특별회의는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두환장군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업무가 운영되었다.

결국 신군부세력에 의해 대표되던 국가보위특별위원회의의 등장에서 임박가능을 담당하도록 설치된 국가보위특별위원회의는 과거의 국가보위특별위원회의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군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주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민주화세력의 저항을 저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

국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도록 설치된 국가보위특별위원회의는 과거의 국가보위특별위원회의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군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주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민주화세력의 저항을 저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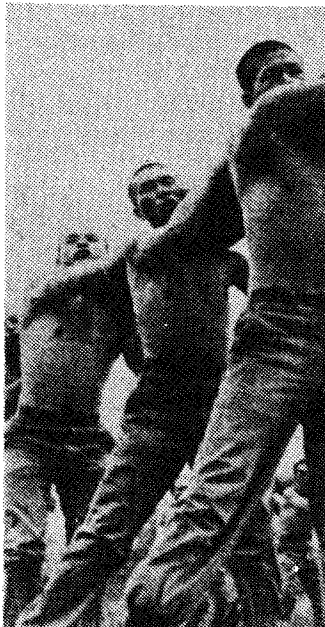
회의에서는 정당법을 비롯하여 정치정보통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대통령선거법, 노사협회의법, 언론기본법, 사회보호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여 민주화세력이 전면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전두환정권의 일방적인 위위를 보장하는 제5공화국의 법적 토대 및 통치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정치정보통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치세력들의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전두환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와같은 전두환정권정권의 초기 형태는 유신체제의 명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이름아래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대대적인 강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것은 결국 자신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에서 국가권력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III. 5공화국 국가권력

전두환정권의 제1기가 군을 바

하고 계엄령하의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선거인단의 구성을 통한 간접선거방식에 의해 출범하였다는 사실은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부담이 제5공화국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국가권력은 불가피하게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억압적인 성격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었고 국내적인 정통성의 결여를 외부 특히 미국으로부터 구하려는 보상조치에 의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기도 하



본가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복잡한 사정에서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정권은 문제해결의 방식을 정권획득 과정에서 가일층 강화된 물리적인 국가장악을 통하여 추진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권획득과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한 보안사(현 기무사)를 비롯하여 국가안전기획부가 민간인에 대한 대대적인 사찰활동을 통하여 주요 경제인물에 대한 동정파악을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적 맥락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전두환정권 등장 이전에 존재하였던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사회는 제1공화국에서부터 과대성장된 국가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어 왔고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구축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과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요인에 의하여 미국에 크게 의존한 결과 미국으로부터의 국가의 자율성을 전지하

여러는 자본주의경제원리의 근본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조치로 볼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그동안의 국가의 관리에 의한 경제운영방식에 의해 파생된 금융의 부실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셋째로는, 보다 강화된 국가개입정책의 실시이다. 이러한 정책의 양상은 전두환정권의 초반의 중화학공업투자조성과 중반의 부실기업 정리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경제정책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비경쟁적인 산업을 도태시키고 자본집중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두환정권의 경제정책을 통해 나타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적 재생산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발전되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국가성격을 구별하여 복잡한 국가론을 통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국가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국내의 독점자본을 포함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권력이 행사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제관계와 발전에 의해 규정되는 이차적인 성질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경제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의 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정권은 지속성과 생명력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정권은 물적 토대의 반영으로서 성립된 다음에 새로운 토대의 창출과 공고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작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군부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국내에서 거센 도전들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있었던 불안한 안정을 지속시켜왔었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권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적 맥락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전두환정권 등장 이전에 존재하였던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사회는 제1공화국에서부터 과대성장된 국가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어 왔고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구축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과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요인에 의하여 미국에 크게 의존한 결과 미국으로부터의 국가의 자율성을 전지하

여러는 자본주의경제원리의 근본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조치로 볼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그동안의 국가의 관리에 의한 경제운영방식에 의해 파생된 금융의 부실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셋째로는, 보다 강화된 국가개입정책의 실시이다. 이러한 정책의 양상은 전두환정권의 초반의 중화학공업투자조성과 중반의 부실기업 정리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경제정책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비경쟁적인 산업을 도태시키고 자본집중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두환정권의 경제정책을 통해 나타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적 재생산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발전되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국가성격을 구별하여 복잡한 국가론을 통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국가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국내의 독점자본을 포함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권력이 행사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제관계와 발전에 의해 규정되는 이차적인 성질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경제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의 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정권은 지속성과 생명력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정권은 물적 토대의 반영으로서 성립된 다음에 새로운 토대의 창출과 공고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작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군부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국내에서 거센 도전들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있었던 불안한 안정을 지속시켜왔었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권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적 맥락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전두환정권 등장 이전에 존재하였던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사회는 제1공화국에서부터 과대성장된 국가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어 왔고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구축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과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요인에 의하여 미국에 크게 의존한 결과 미국으로부터의 국가의 자율성을 전지하

여러는 자본주의경제원리의 근본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조치로 볼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그동안의 국가의 관리에 의한 경제운영방식에 의해 파생된 금융의 부실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셋째로는, 보다 강화된 국가개입정책의 실시이다. 이러한 정책의 양상은 전두환정권의 초반의 중화학공업투자조성과 중반의 부실기업 정리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경제정책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비경쟁적인 산업을 도태시키고 자본집중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두환정권의 경제정책을 통해 나타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적 재생산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발전되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국가성격을 구별하여 복잡한 국가론을 통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국가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국내의 독점자본을 포함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권력이 행사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제관계와 발전에 의해 규정되는 이차적인 성질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경제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의 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정권은 지속성과 생명력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정권은 물적 토대의 반영으로서 성립된 다음에 새로운 토대의 창출과 공고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작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군부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국내에서 거센 도전들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있었던 불안한 안정을 지속시켜왔었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정통성 부재로 대미종속관계 심화 초래 지배조건 강화위해 폭압적 통제정책 펼쳐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월, 그 순수한 젊음의 계절에

새하얀가시작된이런 한달이 지났습니다. 캠퍼스 이곳저곳에 부풀기 시작하는 꽃망울들. 환한꽃을 피우게 될 날도 멀지 않았지요. 어때요?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여러 계획들은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험, 과제물, 아르바이트, 만남... 짝짜짝 시간속에서도 강의실 앞다. 혹은 연못가 벤치에 둘러앉아 불꽃의 젊음의 토론이 이어지겠죠. 4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눈부신 오늘, 오랜만에 전사회라도 둘러보면 어떨까요?

본란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생활을 알리기 위해 현대그림이 제공해 드리는 본란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 있으면 現代그림 文化室 (서울종로구 계동140-2, 전화746-2971)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